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남녀 삽화 연구

이은선* · 전미경**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석사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Illustrations of Male and Female on the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Lee, Eun Seon* · Jun, Mikyung**1)

**M.E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textbooks to examine if their illustrations would be appropriate for students' balanced view of gender. To this end, the textbook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Education 1 and 2' from 12 publishers (24 books in total)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formative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illustrations in the text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re were areas in the textbooks that may not be considered gender-equal. Although the textbooks have been improved to some extent from the previous versions, they still show gender stereotypes biased towards men. If students are constantly exposed to the prescriptive characteristics that are in favor of certain gender, they would find it difficult to develop their personality strengths, due to the gender role pressures. In order to help students cultivate sensitivity and activism toward the gender equality issues, it is important that the textbooks are gender-equal. To summarize, in order to suggest to students a balanced image of society with male and femal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diverse domains,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tantly examine and revise the textbooks for their gender stereotypic contents, and thereby, improve them for gender equality.

Key words: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삽화(Illustrations), 가정 교과서 (Home Economics Textbooks), 기술 교과서(Technology Textbooks)

1) 교신저자 : Jun, Mikyung, 30 Pildong-ro 1gil jeong-gu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E-mail: mkjun@dongguk.edu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전과 달리 젠더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2015년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반(反)여성혐오 가치를 가진 ‘매갈리아’ 사이트가 생긴 이후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Lee, 2016), 2017년 유튜브 ‘갓건배 저격 사건’(Kim, 2018), 2018년 ‘홍대 모델 몰카·유포 사건’(Son & Yoon, 2018), ‘미투 운동’(Jeong, 2018.)은 젠더 간의 대립구조를 양산하며 우리 사회를 들쭉이게 했고 이러한 일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련의 여성혐오와 이를 둘러싼 사건들은 지금 현재 젠더가 뜨겁게 이슈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젠더 갈등에 대한 건강한 논쟁의 과정이 사회의 통합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젠더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성별 불평등이며 이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초래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이 지배적일 때 성 역할 고정관념은 더욱 강화되며 그 결과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Walby, 2005). 남성이 해야 할 역할과 여성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어렵고 따라서 어떠한 노력에도 양성평등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Lee 외, 2017).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 역할을 강요하는 제도 및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과 함께 성 불평등적 인식의 타파를 내재화해야 한다. 또 여성과 남성 즉 젠더적 민감성과 더불어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한 문화적·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대표적 사회화 기관인 학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의 대표 교수매체인 교과서 내 삽화는 텍스트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외형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에서뿐만 아니라 잠재적 관점에도 영향을 미쳐 삽화의 삽입 의도와 무관한 내용까지 학생들에게 반영된다. 여성과 남성들 중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교과서 내 등장인물,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이란 틀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등장인물

이 빈번하게 노출시키는 의식과 행동양식은 학생들의 성의식과 성 역할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학습자에게 최대한 능력 신장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통합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Lee, 2005), 교과서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여성과 남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활약하는 균형적인 사회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술·가정」 교과서가 양성평등한 가치 실현을 위해 학습자에게 균형적인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삽화에서 여성과 남성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고 여기에 담겨진 성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남성과 여성에 관련하여 특정 부분을 과잉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 교과서 내 남녀 삽화의 외형적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기술·가정」 교과서 내 남녀 삽화의 내용적 특징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양성평등과 가정과 교육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 철학에서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평등의 기본 원칙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룰 것을 강조하는 동일성의 원리와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할 것을 강조하는 적합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리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 적용하면, 양성평등이란 양성의 같은 점은 같게 대하고 다른 점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Lee, 2009). 이처럼 양성평등은 평등이 내포하는 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남녀가 지닌 본질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성평등 교육이란 단지 지금까지 소수자로 여겨진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 성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인 것이다.

사실 양성평등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동안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복지 등 각 국가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Hong, 2015), 교육에서도 바람직한 양성평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연구가 다각 면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특히 가정교과는 학교와 학생의 양성평등한 가치 실현에 가장 중심에서 있는 교과이다. 이는 2015 가정과 교과과정의 성취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가정교과 성취기준의 일부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Gwon, 2018).

- [97기01-03] 청소년의 성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 [97기01-05]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 [97기03-07] 일·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개인 및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97기03-08] 생애 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평가한다.
- [97기03-09]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직업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이상의 성취기준은 양성평등의 실천을 위해 성과 성 역할에 대한 이해,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바탕으로 한 행동과 태도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전통적 성 역할과 성적 고정관념이 일상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타파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요구도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때 남녀 모두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다(Lee, 2015).

2. 교과서와 교과서 삽화

질 좋은 교과서는 내용 구성 면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과 적절한 활동의 학습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별도의 상업용 참고서 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도서를 의미한다. 내용 구성면으로는 본문, 사진, 삽화 등의 제시가 학습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 탐구과제, 선택 학습활동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도서라 할 수 있다(Kim, 2006).

그러나 교과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는냐’, 즉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발휘된다. 교육 매체로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교과서라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실제로 다루는 지식은 특정 시대의 특정 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식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결과 계층이나 성별의 상충되는 가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유교적 전통에 의해 성차별이 의심의 여지없이 도덕윤리로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성차별이 교과서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재생산될 가능성이 많다(Kim & Wang, 1999).

한편 교과서 내 삽화는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교과서를 보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더불어 삽화의 또 다른 기능은, 학습자가 교과서 내 인물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간접적인 대리경험을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잠재적 측면에서 무의식적으로 교과서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습득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은 저학년일수록 그 비중이 커진다. 즉 대상이 저학년일수록 이해도 측면에서 삽화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삽화 제공은 중요하다. 즉 삽화는 다른 어떤 설명이나 문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유의미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는 교과서와 삽화가 갖는 의미 및 기능에 주목하여,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한 「기술·가

정」 교과서의 삽화 내용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양성평등 및 교과서 삽화 선행연구 검토

일찍이 가정교육 학계에서는 양성평등, 교과서와 교과서 삽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Choi & Yoon, 2008; Jeong, 2001; Jang, 2008; Jun & Kim, 2008; Kim & Yoo, 2004; Kim, Lee & Son, 2014; Lee, 2001; Wang, 2001; Jun, 2012). 먼저 초기 연구의 하나로 Jeong과 Jeong(1998)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에 초·중등학교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여성의 직업 활동에 대한 기술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성 정형적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가정에서의 활동이 거의 묘사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 성(gender)을 근거로 정보와 가치의 배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이 올바른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Lim과 Lee(2004)는 실과 학습이 성 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아동의 성 역할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교사의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가족과 일의 영역뿐만 아니라 실과교과 전반에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도 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과교과서 내 사진과 삽화의 계량 분석을 시도한 Choi와 Yoon(2008)은 ‘기술의 세계’ 분야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성 모두가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녀 학생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남학생 입장에서, ‘기술의 세계’ 분야에서는 여학생 입장에서의 배려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Jang(2008) 역시 「기술·가정」 교과서의 삽화를 제작함에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남성 친화적 내용과 여성 친화적 내용을 따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 전형적인 여성 활동영역에서 남성 등장인물의 적극적인 활동 묘사가, 남성 영역에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기술·가정」 교과서의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내용분석 및 삽화분석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새로이 개정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삽화 분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과서 삽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기술·가정」 교과서의 양성평등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 연구는 교과서에 수록된 남성과 여성 인물의 삽화 분석을 목적에 두고 있으며, 분석단위는 남성과 여성 인물의 삽화와 사진이다. 또 「기술·가정」 교과는 「가정」 교과와 「기술」 교과가 병합한 교과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가정」 교과는 한 권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으로 발행한 모든 출판사의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 교과서를 분석하였다(<Table 1 > 참조).

2. 자료수집

중학교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 교과서 삽화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단위인 교과서 내 남녀 인물 삽화를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내용요소와 무관한 교과서의 겉표지, 속표지, 머리말, 책의 구성과 특징, 차례, 부록, 찾아보기, 연구진 소개, 관련 면 등의 페이지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학습 내용이 담긴 대단원 시작 면부터 정리 면까지에서 남녀 인물 삽화를 수집하였다. 또 24권의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 교과서 내 남녀 인물 삽화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 10쪽의 간격을 두고 남녀 인물 삽화를 표집할 면수를 먼저 선정하였고 이후 해당 면의 인물삽화 모두를 분석하였다. 이때 표집대상이 된 면에 인물삽화가 전혀 없는 경우 해당 면의 바로 앞면에서 인물을 표집하였고, 그 해당 면에도 인물삽화

Table 1. The object of analysis

No	출판사	교과서	면 수	자재 수	대표 저자	본문 내 표기방식
1	교문사	기술·가정 1	252	14명	최완식	KM1 ²⁾
2	교문사	기술·가정 2	252	14명	최완식	KM2
3	교학사	기술·가정 1	256	10명	정성봉	KH1
4	교학사	기술·가정 2	256	10명	정성봉	KH2
5	금성출판사	기술·가정 1	256	9명	조강영	GS1
6	금성출판사	기술·가정 2	252	9명	조강영	GS2
7	미래엔	기술·가정 1	252	13명	윤인경	ML1
8	미래엔	기술·가정 2	256	13명	윤인경	ML2
9	삼양미디어	기술·가정 1	264	13명	채정현	SMM1
10	삼양미디어	기술·가정 2	264	13명	채정현	SMM2
11	씨마스	기술·가정 1	256	16명	문성환	SM1
12	씨마스	기술·가정 2	256	16명	문성환	SM2
13	천재교과서	기술·가정 1	256	13명	이춘식	CJ1
14	천재교과서	기술·가정 2	256	13명	이춘식	CJ2
15	원교재사	기술·가정 1	256	16명	김기수	WK1
16	원교재사	기술·가정 2	256	16명	김기수	WK2
17	동아출판	기술·가정 1	260	19명	왕석순	DA1
18	동아출판	기술·가정 2	260	19명	왕석순	DA2
19	지학사	기술·가정 1	256	10명	최유현	JH1
20	지학사	기술·가정 2	256	10명	최유현	JH2
21	교학도서	기술·가정 1	256	15명	이봉구	KHD1
22	교학도서	기술·가정 2	248	15명	이봉구	KHD2
23	비상교육	기술·가정 1	258	12명	김지숙	BS1
24	비상교육	기술·가정 2	258	12명	김지숙	BS2

2) 예를 들어 ‘KM1-10’은 교문사 출판사의 「기술·가정 1」 교과서 10쪽에서 발췌하였음을 의미한다.

가 없는 경우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누락되는 페이지가 없도록 하였다. 또 성별 판단이 어렵거나, 다수의 인물이 나오거나, 장식기능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삽화, 과거 인물 삽화, 외국 인물 삽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한 준거 틀 마련을 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의 분석범주는 외형적 측면과 내용적 특징으로 두 개의 축을 나누었으며, 교과서 삽화를 분석한 선행 연구(Jeong & Jeong,

1998; Jun & Kim, 2008; Jun, 2012; Lee, 2011; Lee, 2017; Park, Kim & Noh, 2014; Park, Kim, 2017; Yang, Wang, Yang, Han, 2018)를 참조하였다. 외형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의 하위 구성은 <Table 2>과 같다.

먼저 등장 빈도는 인물의 성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그 빈도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인물의 크기는 비슷한 연령대의 인물이 동일 장면에서 제시되는 삽화를 모두 추출한 후 남녀 인물의 키를 비교하여, ‘남자가 크다’, ‘여자가 크다’, ‘비슷하다’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직업은 본문 내용, 인물의 옷차림·활동이나 배경 등을 참조해 추정하였다. 이때 과거의 사라진 직업은 과거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내용적 특징에 해당하는 신체적·기능적·정서적 특징은 전형적인 남성적 특징과 전형적인 여성적 특징으로 구분한 후, 남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 여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 남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 여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의 하위 구분 속에서 삽화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정서적 특징은 다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 각 구분의 분석기준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은 chafetz(1974)과 Jorgensen(1986)을 참조한 Park, Lee와 Jeon(2001)을 참조해 재구성하였다(<Table 3> 참조).

외형적 특징 중 성별 등장 빈도는 본문 내용요소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중단원에 맞춰 분석하였다. 반면 크기와 직업은 제외하였는데, 크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사례가 거의 없어서 중단원별 비교가 불가하였고, 직업은 내용요소가 곧 삽화의 직업과 연동되기 때문에 중단원별 비교가 의미 없어 생략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교과서 삽화의 외형적 분석

가. 성별 등장 빈도

「기술·가정」 교과서 속 인물의 성별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 인물의 성별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삽화 중 인물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삽화는 총 2,234개였으며, 그 중 남성은 1,172명, 여성은 1,062명으로 남성 52.4%, 여성 47.6%로 나타났다.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의 두 교과서별 출연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기술·가정 1」에서 남성 554명, 여성 482명으로 전체 1,036명이 등장했으며 「기술·가정 2」에서는 남성 618명, 여성 580명으로 1,198명이 등장했다. 두 권의 교과서 모두 남성의 출연 빈도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다음으로 중단원별 남녀 등장인물을 살펴보았을 때 남성

Table 2. The range of analysi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illustration

구분	분석항목	구분	분석항목
외형적 특징	등장 빈도	내용적 특징	신체적 특징
	인물 크기		기능적 특징
	직업		정서적 특징
			남성적 특징
			여성적 특징
			남성적 특징
			여성적 특징
			남성적 특징
			여성적 특징

Table 3. Masculine or feminine characteristics of contents characteristics

구분	특징
신체적 특징	남성적 특징 '힘찬', '운동을 잘 하는'
	여성적 특징 '운동을 잘 못하는', '외모나 노화를 염려하는'
기능적 특징	남성적 특징 '재화를 생산하는', '제작하는'
	여성적 특징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소비하는 가정적인'
정서적 특징	남성적 특징(긍정) '대화를 주도하는', '자신감', '도전하는'
	남성적 특징(부정) '폭력적인', '화를 내는', '다칠 우려가 있는'
	여성적 특징(긍정) '대화를 경청하는', '배려와 보호를 하는'
	여성적 특징(부정) '짜증내거나 우울한', '경솔한 일을 하는'

이 여성보다 많이 등장하는 단원은 전체 33개의 중에서 18개였다.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전체 18개의 중단원 중 7개의 중단원에서, ‘기술의 세계’ 분야에서는 전체 15개의 중단원 중 11개의 중단원에서 남성이 더 많았다. 즉 남성이 더 많은 ‘가정생활’ 분야는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주생활 문화와 주거 공간 활용’, ‘청소년기 생활 문제와 안전’,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청소년의 자기 관리’,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이며, ‘기술의 세계’ 분야의 경우 ‘제조 기술 시스템’, ‘제조 기술 문제해결’, ‘건설 기술 시스템’, ‘건설 기술 문제해결’, ‘미래의 기술과 생명 기술’, ‘수송 기술 시스템’, ‘통신 기술 시스템과 미디어와 이동 통신’, ‘통신 기술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 개발과 표준’ 이다.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등장하는 중단원은 전체 33개 중 12개로 ‘가정생활’ 분야 10개, ‘기술의 세계’ 분야 2개였다. ‘가정생활’ 분야의 경우 18개의 ‘가정생활’ 분야 중 10개 영역, 즉 ‘청소년의 발달의 특성’,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 관리 능력’, ‘청소년의 영양과 식행동’, ‘옷차림과 의복 마련’, ‘식사계획과 선택’, ‘의복 관리와 재활용’, ‘청소년의 소비생활’, ‘저출산·고령 사회와 일·가정 양립’이었다. 반면 ‘기술의 세계’ 분야의 경우 15개의 중단원 중 대부분의 중단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등장하였으나 단 2개의 ‘수송 기술 문제해결’, ‘신·재생 에너지’ 중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나타났다.

남녀의 등장비율이 동일한 단원은 전체 33개 중 3개의 중단원으로 ‘가정생활’ 분야의 ‘주거 환경과 안전’, ‘기술의 세계’ 분야의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과 ‘적정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었다.

나. 등장인물의 크기

아동, 성인, 노인 등 연령대가 비슷한 남녀 인물이 동시에 등장한 경우 남녀 인물의 크기의 차이, 즉 ‘남자가 크다’, ‘여자가 크다’, ‘남녀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구분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인물의 크기 비교를 통해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인물의 크기 분석이 가능한 97개의 장면을 추출하였으며, 크기 비교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97개의 장면 중 남녀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는 31개,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경우는 64개,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경우는 2개에 불과하였다. 즉 교과서에 등장한 동일세대의 남녀는 2개의 예외 장면을 제외하고 남녀의 인물 크기가 비슷하거나(31.9%) 남자를 여자보다 크게 묘사하였다(65.9%)

다. 등장인물의 직업

2015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서는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직업인 인터뷰’(SM1), ‘직업여행’(KHI), ‘생활 속 직업’(BS1),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ML1),

Table 4. Male & female frequency

단위: 명(%)

구분	기술·가정 1	기술·가정 2	전체
남성	554(47.2)	618(52.7)	1,172
여성	482(45.3)	580(54.6)	1,062
계	1,036(46.3)	1,198(53.6)	2,234

Table 5. The size comparison of figure illustration

구분	남자가 크다		여자가 크다		비슷하다		합계
	명	%	명	%	명	%	
가정생활	41	69.4	2	3.3	16	27.1	59
기술의 세계	23	60.5	-	-	15	39.4	38
계	64	65.9	2	2	31	31.9	97

‘직업과 만나기’(CJ1) 등에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 내 직업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는 측면도 있으나 ‘성 역할의 변화’(CJ1)와 같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직업을 소개하고 있었다.

남녀 인물의 직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이 구체적 활동을 하거나,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이나 본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표집한 남녀 인물 중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538명이고, 이 가운데 직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배심원’, ‘환자’, ‘승객’, ‘소비자’, ‘보호자’를 비롯하여 과거의 직업은 제외하였다. 또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전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남녀 인물은 모두 346명이었다.

346명의 직업인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221명과 125명으로, 남성 인물(63.9%)이 여성 인물(36.1%)보다 약 1.5배 많았다. 즉 남성의 경우 직업이 있는 성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기술·가정’ 교과서 내 남녀 인물의 직종은 103개였다.

‘기술·가정’ 교과의 남녀 인물의 직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직종은 회사원으로 총 29번 등장하였다. 그 다음 교사 27회, 연구원 24회, 건축작업자 22회 순으로 등장하였다. 또

1~2회 등장하는 직업도 아주 많았는데, 2회 등장한 직업은 18개였고, 1회 등장한 직업은 50개의 직업이었다.

한편 이상의 직업을 남녀 성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교과서에 나타난 남녀 직업의 양상과 고정관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5회 이상 등장한 직업 가운데 남녀 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설계전문가, 택배기사, 아나운서는 각각 6명, 6명, 5명 등장하였는데 모두 남성으로 묘사되었다. 이에 반해 5회 이상 등장한 직업 가운데 여성으로만 묘사된 직업은 없었다. 다음으로 직업에서 남녀 등장 빈도가 비슷한 직업은 교사(남성 14명, 여성 13명), 의사(남자 5명, 여자 5명), 판매원(남자 4명, 여자 3명)이었다. 또 5회 이상 등장한 직업 가운데 남녀 간 등장 빈도의 차가 가장 큰 것은 농업종사자(남자 8명, 여자 1명), 건축작업자(남자 18명, 여자 4명), 공장관리자·로봇개발자·자동차정비공(남자 4명, 여자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직종 중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았다(<Table 6> 참조). 1~2회 등장하는 직업의 경우 등장 빈도가 낮기 때문에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직업이 무엇인지를 모두 확인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직업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The job composed of single gender

빈도	남성만 있는 직업	여성만 있는 직업		
4명 이상	설계전문가(6), 택배기사(6), 아나운서(45), 운수업종사자(4)	-		
3명	경찰, 요리사, 측량기사, 판사	파일럿		
2명	개발자, 건축가, 배달원, 품질관리사	모델, 상담사, 연예인		
1명	3D프린팅 전문가	식품공장직원	가족치료사	수의사
	개인트레이너	종교인(신부)	감정코칭전문가	시간관리전문가
	공무원	연구실안전 관리원	건강가정사	식단플래너
	기계공학자	온실가스 관리자	계산원	여행가
	농장주	인공지능 전문가	공정여행기획자	영양사
	로케이션매니저	자전거수리공	궁중음식연구원	의상디자이너
	목공작업자	장인	기상캐스터	임상심리사
	미화원	전자공학기술자	다문화언어지도사	장애인여행코디
	방송국근무	피셜리테이터	목수	전기기술자
	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상담원	제품환경전문가
	변호사	항공우주공학자	생태전문가	통역사
빅데이터전문가	환경공학기술자	성교육전문가	패션디자이너25	
사무관		소비자분쟁의위원회		
계	37	29		

2. 교과서 삽화의 내용적 분석

가. 신체적 특징

이 연구에서 신체적 특징은 교과서 삽화 내 남녀 인물의 신체적 모습과 수행활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즉 삽화 속 인물의 모습과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체적 특징은 남성적 특징 즉 ‘힘찬’, ‘운동을 잘하는’의 모습과, 여성적 특징 즉 ‘운동을 잘 못하는’, ‘외모나 노화를 염려하는’로 구분한 후, 남성/여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과 남성/여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7>에 나타나 있듯이 교과서 내 남녀 인물의 신체적 특징은 남성적 특징 134명, 여성적 특징 46명으로, 남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경우가 여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경우보다 약 3배 많았다. 다시 말해 「기술·가정」 교과서 내 남녀 인물은 ‘힘찬’, ‘운동을 잘하는’ 모습이 ‘운동을 잘 못하거나’, ‘외모나 노화를 염려하는’ 모습 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34명의 남성적 특징은 남성과 여성 중 어떤 성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빈도분석의 결과 남녀는 각각 83(62%)명, 51(3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 많았다.

신체적 특징 중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삽화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스트레칭(체조, 요가), 유산소 운동(달리기, 산책, 등산, 배드민턴, 줄넘기, 춤), 운전(자전거, 자동차 전동휠), 구기운동(축구, 농구), 근력 운동(헬스, 씨름), 성장 측정(신장, 체중), 야외활동(낚시, 모험)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활동은 자전거나 자동차 등 탈 것을 이용한 활동(36회)으로, 남성(25회)이 여성(11회)보다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삽화는 달리기(31회)였고, 여성(17회)

이 남성(14회)보다 많이 등장하였다. 또 구기 운동을 수행하는 모습은 남녀(각 3회)가 모두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 특이한 사례로 농구하는 모습에서 여성은 적극적으로, 남성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BS1-90). 또한 근력을 이용한 운동인 헬스와 씨름은 6회 등장했는데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여성만 등장한 운동은 등산(3회), 배드민턴(1회), 요가(1회), 줄넘기(1회)였다.

다음으로 여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남녀의 삽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 속 남녀 인물이 여성적 특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남성 21명(45.7%), 여성 25명(54.3%), 총 46명이었다. 신체적 특징 중 여성적 특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남녀 인물의 모습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도구사용이나 활동 등에서의 부자연스러운 몸짓과 태도),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다이어트, 폭식증, 거식증, 기타 식이장애, 거울보기, 신체변화에 민감, 복장 신경, 부적절한 복장), 약한 체력(운동 못함, 입원, 저작咀嚼 곤란) 등의 태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상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장면은 외모에 신경 쓰는 장면(13회)으로, 여성(10회)이 남성(3회)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 체력이 부족하여 운동을 못하는 장면(7회)은 남성(6회)이 여성(1회)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였다. 복장 등 패션을 신경 쓰는 장면도 6회 나타났으나 남녀의 빈도는 각각 3회로 동일하게 나왔다. 그러나 장소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을 갖춘 장면(3회)에는 여성만이 등장하고 있었다(<Figure 1> 참조).

나. 기능적 특징

기능적 특징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에 초점을 두었고, 남성적 특징은 ‘재화를 창출하는’, ‘제작하는’을 기준으로, 여성적 특징은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적인’, ‘소비하는’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Table 7. The distribution of gender of physical characteristics

내용	남성	%	여성	%	합계
남성적 특징	83	61.9	51	38.1	134
여성적 특징	21	45.7	25	54.3	46
계	104	57.7	76	42.3	180

「기술·가정」 교과 내 기능적 특징을 읽을 수 있는 남녀 인물 삽화는 모두 816개였고, 이 중 남성 삽화가 440개(53.9%), 여성 삽화가 376개(46.1%)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Table 8> 참조).

기능적 특징을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남성적 특징의 삽화는 416개였으며, 남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은 258개(62%), 여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은 158개(38%)로, 남성적 특징은 남성에 의한 것이 여성에 의한 것보다 1.6배 많았다(<Table 8> 참조).

남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삽화는 제작과 생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직업인으로서의 업무 수행, 벽화·포스터 그리기, 만들기(가구 제작, VR 안경, 생활용품의 소품, 옷 등) 전기수리, 실험·실습하기, 농사짓기, 요리, 물건 팔기, 캠핑활동 등이 있었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등의 기능성 소품을 만드는 모습(28회)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남성(17회)이 여성(11회)보다 약 1.5배 더 많은 수로 등장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만들기와 관련한 내용에서, 패션소품 만들기(5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지만, 서랍장·장난감 등 생활소품 만들기(6회)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구 사용, 전기제품의 제작, 관리 등의 장면(4회)은 남성(2회)과 여성(2회)이 동등한 비율로 등장하고 있었

다. 또한 기능적 일면이 드러나는 남성적 특징에서 남성은 만드는 과정을 삽화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다 만들어진 소품을 착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다(<Figure 2> 참조).

다음으로 여성적 특징의 삽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적 특징에서 여성적 특징의 삽화는 모두 400개였으며 남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과 여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이 각각 182(45.5%), 218(54.5%)로 여성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기능적 특징에서 여성적 특징으로 구분 가능한 삽화의 모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거나 가사를 담당하는 모습이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구매활동(식품, 생활용품 등의 장보기), 가족과 함께하기(대화, 식사, 캠핑, 여행, 게임, 사진 찍기), 돌보기(문병, 등하교 돌보기, 자녀 양육, 숙제와 학업 돌보기 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것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5회 등장하는 가족과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남성은 30회, 여성은 35회, 62회 등장하는 가족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남성은 33회, 여성은 29회로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안일을 하는 모습(62회)은 여성이 40회, 남성이 22회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많았다.

또한 ‘집안일’을 하는 삽화는 단원에 따라 집안일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 관리 능력’ 등 건강한 가족



Figure 1. Masculine and feminine illustr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Table 8. The distribution of gender in functional characteristics

내용	남성	%	여성	%	합계
남성적 특징	258	62	158	38	416
여성적 특징	182	45.5	218	54.5	400
계	440	53.9	376	46.1	816

관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위에서는 가족 모두가 청소 참여하는 장면을 내세우며, 가족원 모두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반해 ‘저출산·고령 사회와 일·가정 양립’의 단위에서는 여성이 가사노동으로 고민하는 장면(8회)이 다수 등장했다(<Figure 3> 참조). 이는 단위별 목표에 의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의 언급을 위해 여성이 가사를 혼자서 담당하거나 고민하는 장면을 삽화로 넣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 정서적 특징

인물의 정서적 특징을 남녀 성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남성적 특징은 긍정적인 일면인 ‘대화를 주도하는’, ‘자신감, 도전하는’과 부정적 일면인 ‘폭력적인, 화를 내는’, ‘다칠 우려가 있는’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 여성적 특징은 긍정적 일면인 ‘대화를 경청하는’, ‘배려와 보호를 하는’과 부정적 일면인 ‘짜증내거나 우울

한’, ‘경솔한 일을 하는’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술·가정」 교과 내 정서적 특징을 나타내는 인물 삽화는 모두 752개였고, 이 중 남성 삽화가 390개(51.8%), 여성 삽화가 362개(48.1%)로 비교적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Table 9> 참조).

다음으로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의 삽화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남성적 특징의 긍정적 삽화를 먼저 살펴보면 총 428개로, 남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은 225개(52.6%), 여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은 203개(47.4%)로, 남성적 특징은 남성에 의한 것이 여성에 의한 것보다 1.2배 많았다. 또 ‘대화 주도’, ‘자신감, 도전하는’에 해당하는 남성적 특징 중 긍정적인 삽화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정보, 기능의 소개, 의견 제시, 토론 진행, 체험(모형, 가상현실, 실습, 등산) 등이 있었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온 것은 자신감을 나타내는 모습(270회)이었고, 남성이 147회, 여성이 123회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삽화는 호기심을 나타내는 모습(59회)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회, 30회로



Figure 2. Masculine and feminine illustration of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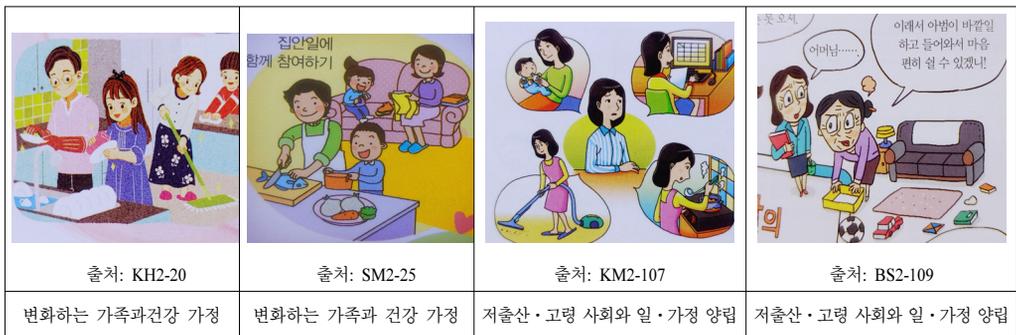


Figure 3. The scene of male and female appearance for each chapter

Table 9. The distribution of gender in emotional characteristics

내용	남성	%	여성	%	합계
남성적 특징(긍정)	225	52.6	203	47.4	428
남성적 특징(부정)	38	70.4	16	29.6	54
여성적 특징(긍정)	65	41.9	90	58.1	155
여성적 특징(부정)	62	53.9	53	46.1	115
계	390	51.8	362	48.1	752

비슷한 양상으로 등장했다.

다음으로 남성적 특징의 부정적 삽화는 총 54개로 남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은 38개(70.4%), 여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은 16개(29.6%)였다. 즉 부정적인 남성적 특징도 남성에 의한 것이 여성보다 2.3배 더 많았다. 남성적 특징의 부정적인 정서는 분노표현, 폭력행사, 범죄(물품 갈취, 담배 권유), 위험한 행동(상해를 입거나 입을 예정) 등의 모습이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장면은 분노표현 장면(26회)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5회, 11회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폭행하는 폭력성을 나타내는 장면(4회)은 여성은 등장하지 않고 오롯이 남성만이 등장하고 있었다. 독성물질을 흡입하거나 카트에 위험하게 매달리기, 공구를 들고 장난치기 등의 위험한 행동(19회)은 남성(17회), 여성(2회)로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다음으로 정서적 특징에서 여성적 특징에 해당하는 삽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적 특징 중 긍정적 삽화는 모두 155개였으며 남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과 여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이 각각 65개(41.9%), 90개(58.1%)로 여성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여성적 특징에서 긍정적 정서가 나타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경청, 응원, 격려, 친절, 배려, 보호(아기, 동생, 자녀, 노인, 환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로 나온 모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보호하는 것(122회)으로 여성 70회, 남성 52회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온 삽화는 부모님 혹은 또래 친구와 의사소통에서 경청하는 모습(33회)으로 남성(13회)과 여성(20회)의 비율에서 여성이 더 많이 등장했다.

여성적 특징의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삽화는 총 115개로 남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이 62개(53.9%)로 여성에 의한

여성적 특징 53개(46.1%)보다 1.1배 더 많았다. 여성적 특징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삽화로는 정서적 학대(따돌리거나 어울리는 것 막기, 짜증내기, 소리 지르기), 경솔한 행동(촬영이 금지 구역에서 사진 찍기, 층간소음, 예절을 지키지 않음) 등의 인물이 다수 등장했다. 삽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36회)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물리적 학대인 신체 폭력에 남성만이 등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성(17회)과 여성(19회)의 성별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게 등장했다. 반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무기력, 방임으로 인한 청소년 우울증(23회)을 표현하는 삽화에서는 여성(8회)보다 남성(15회)이 약 2배로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했다.

V. 결론 및 논의

교과서 내 등장인물은 학습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학습자가 하나의 등장인물을 한 명의 인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등장인물의 성격 및 태도는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교과서 내 등장인물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기술·가정」교과가 제시된 성취기준에 맞춰 균형적인 사회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양성평등 관점에서 「기술·가정」교과서의 남녀 인물 삽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12개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1」·「기술·가정 2」교과서, 총 24권의 인물 삽화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삽화의 분석은 외형적 특징(성별 등장 빈도, 등장인물의 크기, 직업)과 내용적 특징(신체적 특징, 기능적 특징, 정서적 특징)에

서 기술하였고,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속 인물의 성별 등장 빈도 분포를 알아보고자, 교과서 내 인물의 성비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의 양 교과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빈도로 등장했다. 중단원별로 세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18개의 중단원으로 나누어진 ‘가정생활’ 분야에서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단원의 수는 7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단원은 10개, 남녀의 비율이 동일한 단원은 1개였다. ‘기술의 세계’ 분야는 15개의 중단원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단원은 11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단원은 2개, 남녀의 등장 비율이 동일한 단원은 2개였다. 특히 ‘기술의 세계’ 분야의 ‘건설 기술 시스템’ 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등장비율의 차이는 3.2배로, 전체 중단원 중 남녀 등장 빈도 차가 가장 컸다. ‘건설 기술 시스템’에는 건축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성인 인물 삽화가 다수 등장하였는데 여성은 대개 건축물 완공식 안내원이나 설계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반해 남성은 공사 시공업자, 건축작업자, 감리자 등으로 다양한 건축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건축을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던 시대는 지나가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건축을 첨단과학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첨단과학도 더 이상 특정성별의 전유물은 아니다. 따라서 건설 기술을 다루는 본 단원에서는 남녀의 성별 비중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면에서도 양성평등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둘째, 남녀 인물 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고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을 모두 수집한 후 키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 내 남녀 키가 비슷한 경우는 31개,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등장한 삽화는 64개, 여성이 남성보다 크게 그려진 삽화는 단지 2개에 불과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비교 가능한 58개의 장면 중 단 1개의 장면만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크게 그려져 있었다. ‘가정생활’ 분야의 청소년의 발달 단원에서는 신체적 발달 특히 청소년기 성장급등을 남녀 성차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의 경우 여성의 신체적 성장이 남성보다 더 빠른 시기이다. 그럼에도 교과서 내 남성보다 큰 여성의 삽화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특정부분을 과잉평가 혹은 과소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표집한 직업인은 남성 인물이 여성 인물보다 약 1.5배 많았다. 즉 직업이 있는 성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빈도로 묘사되고 있었다. 교과서 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직업은 회사원인데, 이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이 등장하였다. 등장 빈도에서 4위를 차지한 건축작업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4배 이상 많았다. 또 교과서에서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만 구성된 직업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남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여성의 직업이라 여겨지지 않는 파일럿이 3회 모두 여성 파일럿으로 묘사되는 등,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려는 일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만 묘사된 직업은 기술자, 노동·관리 직종인 반면 여성으로만 묘사된 직업은 식생활, 가족생활, 심리상담 등의 직종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미루어 볼 때, 「기술·가정」 교과 내 직업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해 묘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신체적 특징은 ‘인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포된 의미를 알고자 했으며, 전통적 성 역할 관념에서 전형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의 특징이라 여겨지는 장면을 찾아 분석하였다. 즉 남성적 특징이 남성 혹은 여성 중 어떤 성에 의해 어떤 빈도와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남성에 의한 남성적 특징이 여성에 의한 것보다 1.6배 많았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빈도의 활동인 달리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 축구나 농구 등의 구기 운동을 수행하는 모습은 남녀가 모두 고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농구의 경우 4번의 장면이 나왔는데 2번의 장면 모두 여성이 적극적으로 공격이나 수비를 하는 모습으로 실려 있었다. 반면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대표적인 근력 운동인 헬스와 씨름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만 등장한 운동은 등산, 배드민턴, 요가, 줄넘기로서 스트레칭이나 단순 유산소 운동 위주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적 특징의 경우 성적 고정관념을 적극적으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고정관념이 반영된 삽화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적 특징의 삽화에서는 외모를 신경 쓰는 모습이 여성에 의한 경우가 남성에 의한 경우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체력이 부족하여 운동을 못하는 인물은 남성이 5배 이상 더 등장했다. 운동을 못하는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의 비교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학생들에게 남성이라면 ‘힘이 세야한다’, 혹은 ‘운동을 잘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댄 경우라 하겠다. 특히 「기술·가정 1」의 중요한 내용요소인 ‘상상적 청중’은 삽화와 더불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었다.

다섯째, 기능적 특징은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두어 삽화가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남성적인 면에 해당하는 삽화의 수는 총 416명이었으며, 남성에 의한 경우가 258개, 여성에 의한 경우가 158개 장면이었다. 특히 생산활동의 하나인 만들기의 경우 남녀 성별 고정관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즉 패션소품 만들기(5회)는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지만, 서랍장·장난감 등 생활소품 만들기(6회)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공구와 전기제품의 제작, 관리도 동등한 비율로 등장했다. 이상에서 성적 고정관념이 탈피한 장면도 있었으나 여성과 남성 간 뚜렷한 고정관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능적 특징에 여성적인 면에 해당하는 삽화는 총 400명이었으며 남성 182명, 여성 21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인물의 출연 빈도가 높은 장면은 ‘가족과 대화’하는 모습과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었다. 가족 대화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균등하게 나타났으나 집안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많았다. 그런데 ‘집안일’을 나타내는 삽화는 중단원의 내용요소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 관리 능력’의 중단원 내 집안일의 경우는 가족 모두가 청소에 참여하는 등, 균등한 성비의 가사노동 참여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 사회와 일·가정 양립’의 단원에서는 여성이 가사노동으로 고민하는 장면이 다수 등장했고, 이는 현실을 반영한 삽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교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은 가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안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장면에 남녀가 특정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섯째, 교과서 내 인물의 정서분석을 위해 수집된 남녀 인물 삽화는 총 752개였다. 이 장면을 남성적·여성적 특징으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긍정적·부정적 장면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먼저 남성적 특징에서 나타내는 긍정적인 정서는 428명이었고, 남녀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남성

적 특징의 부정적인 정서에서 물리적인 폭력성을 나타내는 인물은 여성이 등장하지 않았고 오롯이 남성만이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독성물질을 흡입하거나 카트에 위험하게 매달리기, 공구를 들고 장난치기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인물은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이상에서 부정적 내용은 남성에 의해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한 행동의 금지를 설명하기 위한 삽화가 특정한 성에 국한하여 묘사되는 것은 성 고정관념적 입장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적 특징의 긍정적인 정서를 살펴보면, 대화를 경청하거나, 배려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반면 여성적 특징의 부정적인 정서인 짜증내거나 우울한, 경솔한 일을 하는 경우는 남성의 등장 비율이 여성의 등장 비율보다 높았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불화로 인한 우울, 무기력을 나타내는 삽화가 20회 이상 나왔는데 남성이 여성의 2배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정서적 특징의 부정적 장면은 여성보다 남성에 의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전형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곳에 여성이 등장하였고, 반대로 전형적인 여성의 영역에 남성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성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교과서 내 남녀 등장인물에서 공고한 성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기술·가정」 교과 내 가정영역과 기술영역 모두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교육에서 두 교과 간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상의 이 연구가 성취한 의미 있는 결과임에도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전통적 성 역할에 근거해 남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성 역할에 담긴 성적 고정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한 분석 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의 틀이 연구의 분석틀로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정서적 특징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눌 수 없으며, 특히 부정적 정서 역시 건강한 삶에서 꼭 필요한 정서이다. 다만 정서 표현의 바람직함 여부가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다루지 못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가정과학」 및 가사계열 선택과목을 분석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대상을 넓힌다면 「기술·가정」 교과 내 의도하지 않은 성적 고정관념 및 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고, 나아가 이것의 극복을 통해 양성평등의 교육이라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성취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사실 기존의 양성평등 관점은 여성과 남성을 더욱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기에 남성과 여성을 넘어선 상위 차원의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에 여성 대 남성의 페러다임을 넘고자 성인지의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성인지는 두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양성평등 관점이 가진 한계 및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다. 추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과서 삽화 연구를 통해 이 연구가 밝히지 못한 부분의 고찰을 기대한다.

둘째, 교과서 삽화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남녀 인물의 전체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계량적 분석 및 이를 통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향후 내용요소에 따라 삽화 내 남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의 심도 깊은 질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우리 교과의 감추어진 성적 고정관념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의 틀과 달리 교과서 내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이 동일한 주제와 활동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기술·가정」 교과서는 아홉 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겪으면서 양성평등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일보하였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 교과서가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교과서 내 남녀 삽화가 양성평등한 모습으로 진일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성적 고정관념이 확연하게 두드러진 장면 역시 많았다. 이 연구는 교과서 내 삽화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성적 고정관념과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특정성별에 편중되어 있는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양성평등 교육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Gwon, H. Y. (2018). The reinforcement gender-sensitivity ability for the teacher of high level gender-sensitive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2018 Spring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Korea*, 92-112.
- Kim, M. J., & Yoo, T. M. (2004). Content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of the 7th curriculum by units from the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27-41.
- Kim, J. B. (2006). Investigation on enhancing the efficacy of textbook policy in Korea.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26(2), 21-64.
- Kim, Y. -J., Lee, S. -H., & Son, S. -H. (2014).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representa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home economics textboo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2), 31-49.
- Kim, J. S. (2018). 'BJ 갓건배 저격사건 분석 논문 등장 "다양한 연대로 여성혐오 대응해야"' ['BJ gat geonbae incident' Analysis paper appear]. *Seoul Economic*.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IUCNZP7>
- Lee, H. J. (2005). *An analysis of gender role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 Lee, C.-S., & Wang, S. -S. (1999). The strategies for exploration of teaching-learning models and assessment materials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2(1), 825-840.
- Lee, C. S. (2001). A study on the intention of textbook writing and the teaching-learning strategy of woodworking in practical arts subject.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4(3), 143-160.
- Lim, E. J., Lee, S. S. (2004). The effects of practical arts teaching-learning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on gender role attitud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4), 61-74.
- Lee, H. Y. (2009). *A study on the way the korean textbooks describe female charac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C. -S. (2011). Illustrations analysis of technology contents in the practical arts subject of the revised curriculum 2007.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4(2), 195-213.
- Lee, C. -S. (2015). Key concepts of 'world of technology' domain of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 subject based on amended curriculum in 2009. *Journal of New Paradigm of Technology Education in the Information Age*, 15(1), 49-67.
- Lee, M. J. (2016).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 온 · 오프라인서 추모 물결 이어져 [Murder crime of gangnam station].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5/360025/>
- Lee, S. J., & Lee, S. M. (2017). Do women's attitude to domestic works and self-perception of social norms enforce the gender division of housework?: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58, 5-36.
- Lee, S. J. (2017). An analysis study on the contents of occupa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Education Association*, 36(6), 1-18.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Sejong: Author.
- Park, G. R., Lee, Y. S., & Jeon, G. Y. (2001). *Modern family education*. Seoul: Hak Jisa.
- Park, C. G., & Kim, G. S. (2017). The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2009 elementary schools integrated textbook illustrations analysis from the multi-cultural of view.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 27(1), 115-140.
- Park, H. C. (2016). Feminism is not a choice but a matter of survival. *Han Gyeongye*.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5793.
- Son, U. S., & Yoon, M. J. (2018). Hidden camera crime at hongik university. *Moon Hwa Ilbo*. Retrieved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130107122130>
- 2001
- Jeong, H. S., & Jeong, G. A. (1998). *Analysis to textbook and operating the 6th curriculum on the viewpoint of gender-sensitive*.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Jeong, H. S. (2001). The gender equalit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7, 5-22.
- Jang, M. G. (2008). *A study on the illustrations and learner awareness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der equality*.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H. J. (2018). *여성들은 매일 미투를 외친다 [The women shout 'me, too']*. *The Hankyoreh* 21. Retrieved from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035.html
- Choi, Y. -S., Yoon, I. -K. (2008).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hotos and illustrations in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based on a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 85-100.
- Hong, H. J. (2015). *Does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contribute to gender equ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Wang, S. S. (2001). Analysis and discussion on chapters related to home management in the seventh edition of the practical arts textbook.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Korea*, 14(3), 127-142.
- Walby, S. (2005). Gender mainstreaming: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2(3), 321-343.
- Wang, Y. -B., Yang, J. -H., & Han, H. -J. (2018). An analysis of gender inequality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of China.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 38, 129-151.
- Yang, C. H., Park, J. -S., Kim, Y. -J., & Noh, T. H. (2014). An analysis of gender-role stereotype in the illustrations of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58(2), 210-220.

<국문요약>

성 고정관념에서 오는 성별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즉 젠더적 민감성과 더불어 젠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가정 교과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2015 교육과정 개편이 새로이 있었으나 성 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교과서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을 두고 기술 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술·가정」 교과서 내 삽화가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사회상을 제시한다는 교과서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점성교과서 「기술·가정 1」과 기술·가정 2」를 기준으로 총 24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삽화의 외형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분석범주로 삼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판단해보자면 우리 교과서가 모든 면에서 성 평등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특정 성별에 편중되어 성 정체성이 잔재하고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고 비판의식을 함양한다는 성 평등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활약하는 균형적인 사회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서 편집 시 성별의 처방적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고 편견 요소를 축소하여 양성평등 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검토를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06월 04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0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06월 30일